

## 레지오 훈화 -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 8-1. 맺음말 (4)

수많은 대중 신심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참된 것이며 성령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식별하는 작업을 통하여, 과장된 마리아 신심과 공경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공경을 통하여 표현되는 대중 신심에 대한 신학적 탐구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레지오 마리아 신심 운동의 큰 성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교회에서는 마리아 공경이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나친 ‘거짓 과장’이나 ‘협착한 마음’의 두 극단을 피하고, 올바른 마리아 신학과 건강한 마리아 신심의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곧 ‘교회 헌장’ 제8장 67항에서 “신학자들과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천주 성모의 독특한 품위를 숙고하는 데에서 어느 모로든 온갖 거짓 과장이나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을 애써 삼가도록 간곡히 권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시에, ‘교회의 전형’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모범이 되신다는 ‘마리아론의 기본 원리’에 대한 지속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48~49쪽>

###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4명 중 주일미사 175명 참례 / 참례율 : 24.51%

평일미사	토 (9/13)	월 (9/15)	화 (9/16) 내촌 / 본당	수 (9/17) 본당 / 송정	목 (9/18) 송정 / 본당	금 (9/19)
	13명	11명	16명 / 16명	11명 / 14명	15명 / 21명	11명
주일미사 (9/14)	토요일 저녁	교중미사				
	32명	143명				

### 우리들의 정성 십자가 헌양 축일

주일 헌금	1,202,000	교무금	1,410,000	감사 헌금	200,000
양성, 복지, 원로	154,000	성전건축 적립금	600,000	미래 기금	121,000

**교무금** 조영재, 최윤정, 원승현, 강인식, 최정규, 박찬, 김명숙, 김주하, 이향숙, 조인순, 김승옥, 이기영, 최삼순, 임옥자, 신현수, 박영미

**감사헌금** 이인열(울리타) 20,000 최재길(아오스딩) 50,000 이기희(안나) 100,000 신오순(안나) 30,000

**성전건축 후원** 이성희(마르가리타) 300,000

## 창조시기 강론

### 열매를 꿈꾸며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기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1년 지구의 날을 맞아 “생태적 시선으로 깊이 바라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웃과 피조물 안에서 경이로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이웃과 피조물’을 대상이나 도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 편리함만을 추구함으로써 자초한 일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않고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귀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욕심 사납게 쌓아두기만 하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다 잃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루카 12,16-21 참조)

몽골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매서운 몽골의 모진 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몇 그루씩 심는다고 정말 사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 심었다던 나무는 아직 허리 높이도 못 자랐습니다. 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데 나무의 성장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니 이게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일까 되돌아봅니다. 나무를 심는 손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아마 피상적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하고 오직 눈앞의 성과만 계측하는 세상의 평가에 주눅 들어 있나 봅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만 앞섭니다.

202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의 주제는 ‘평화와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기후 재난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태적 회개의 구체적인 결심과 함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조물을 깊고 크게 바라보는 시각, 경이로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찾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황량한 흙에 심은 작은 나무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땅에 나무를 심는 손길과 나무를 살려주고 키워주는 하느님의 생명력 넘치는 자비가 연결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숲을 희망할 수

있고 넘치는 생명력 안에 계신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5-18).

연일 이어지는 기후 재난의 소식에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되돌리기 위해 지치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연결된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배려, 탐욕을 내려놓음으로써 함께 공존함을 선택함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기꺼운 의무입니다. 우리 희망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노력을 봉헌합시다.

## 참된 인본주의와 기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기술을 제한하고 그 방향을 바꾸어 기술이 다른 형태의 발전, 곧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실제로 가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군소 생산자들이 오염을 줄이는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 지상주의를 지양하는 삶과 여유와 공동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 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삼아, 그들이 더 존엄하게 덜 고통받으며 살아가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이를 바라보려는 의지가 모든 대상을 객관화하려는 힘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과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일종의 구원이 됩니다. 새로운 종합을 요청하는 참된 인류애는 마치 달힌 문의 아래 틈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안개처럼 알게 모르게 기술 문화 한가운데 자리 잡는 듯합니다. 참된 인류애의 굳건한 저항으로 싹트는 그 기대는 모든 어려움에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찬미 받으소서, 112항.)

‘참된 인류애’는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멈추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 줄 대체재가 점차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은 대체재를 생각 없이 사용하는 데서는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삶의 깊이를 되찾는 일’은 아마도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요청되는 일일 것입니다.

20세기 가톨릭의 신학자 중 한 분인 독일의 칼 라너(1904년-1984년) 신부님은 1924년 월간지인 ‘등대’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너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들에 매달리게 된다. 땅의 것들처럼 작아지고 그것처럼 좁아지고, 그것에 짓눌려 결국 그것에게 팔려 버리고 말지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게 마냥 내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작고 좁게 만드는 일상에서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래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신 그분께 가 닿을 수 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느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전달하시고, 사랑으로 피조물을 감싸 안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현실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 초라한 존재의 허무함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알량한 자존심과 편협한 자기 증독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가 되면 그 영혼에 빛을 비취 주신다. 그러면 영혼은 강력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 결코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드넓고 헌신적이고 순결한 마음, 그렇게 신실한 마음을 원하게 된다”(칼 라너, 기도, 12-13쪽).

기후위기 시대 인류에게 요청되는 또 다른 영성은 ‘참된 인류애’일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파국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목적과 의미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는 통로이자 도구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이를 더해주고 참된 인류애를 가능하게 할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